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16 호

2019 년 12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공동주최] 2019 상하이 CSR 환경·노동 세미나 안내

■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인권에 대한 기준을 높이자
2. 유엔글로벌콤팩트, <기업과 인권의 미래 모색: 우수 사례> 발간

[발간물]

- 기업과 인권의 미래 모색: 우수 사례 (Navigating the Futur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Good Practice Example)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가전용 환경광(Ambient Light) 충전

2. [Goal 3, 8, 9, 17]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KT
3. [SDG 미디어 존] SDG 엠비션: 기업 활용 방안

■ UNGC 회원 뉴스

1. 현대차그룹, 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4년 연속 1위
2. 한국무역보험공사, 장애인 고용기업에 수출안전망보험 제공
3. 경기일자리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CSR 뉴스

1. Maximize the positive' from new technologies, for our digital future, Guterres urge
2. 유엔의 경고..."탈원전 한국 온실가스 줄여라"
3. 유럽의회, '기후 비상사태' 선언... 국제사회 행동 압박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공동주최] 2019 상하이 CSR 환경·노동 세미나 안내



2019 상하이 CSR 환경·노동 세미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최근 UN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동향과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부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 CSR 활동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 및 제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9년 12월 6일 (금)
- 장소: 중국 상하이 르네상스 상하이 양츠 호텔 A 홀
- 상세 프로그램:

시간	일정
09:00~9:30	참가자 등록 및 VIP 도착
9:30~9:45	축사 - 주상하이총영사관 최영삼 총영사 - 상해시 정부 당국자 - UNGC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
9:45~10:10	UNGC 소개 및 CSR/SDGs 국제동향 - UNGC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
10:10~10:40	전문가 강연(1) : 중국 내 환경분야 CSR 동향 - 클린아시아 원영재 대표
10:40~10:50	커피 브레이크

10:50~11:20	전문가 강연(2) : 기업과 노동/인권 -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11:20~11:40	화동지역 우리 기업 우수사례 발표 (1) - SK 하이닉스
11:40~12:00	화동지역 우리 기업 우수사례 발표 (2) - 대한항공
12:00~13:30	폐회 및 네트워킹 오찬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Executive Update] 인권에 대한 기준을 높이자

본 기고문은 2019년 11월 22일에 [GreenBiz](#)에 게재된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의 글](#)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인권은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에게 기초적인 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불평등 심화와 기후 위기 앞에서 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분야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격동의 환경에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볼리비아, 칠레, 홍콩 SAR, 레바논 등 인권 침해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곳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든 인권이 위기가 존재한다면, 그 영향력은 모든 곳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 따르면 폭력적인 분쟁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서, 폭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8년 한 해에만 14조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사회의 고충을 포함한 인권 관련 고충은 갈등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면, 기업 또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진보적인 비즈니스 리더들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넘어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 그들의 전략과 운영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해관계자 참여가 단지 표면적인 과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에 귀 기울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은 소비자, 투자자, 일반대중에게 그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브랜드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서 인권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기업은 평화로운 포괄적 번영의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일구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뿐 만 아니라, 갈등과 불안정은 비즈니스 전략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사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CEO 대상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기업 리더 중 63%는 시장 전반에 걸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경쟁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글로벌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한 결과 세계 경제계가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침해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소재의 [주요 채굴업체 중 절반](#)이 물과 토지 접근권 침해에서 부패, 폭력, 사망에 이르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 보고서([UN Global Compact Progress Report](#))는 경영계내 큰 인권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 기업의 91%가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23%만이 인권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15%만이 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20 개의 독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인권 존중 서약을 하곤 하지만, 그들이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운영한다는 것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근거한 실사(Due Diligence)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에도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투명성과 공적인 의사소통의 지속적인 부재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간다의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8 개 기업 중 2 개 기업 만이 공개적으로 인권 실사와 지역사회 참여 노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명시된 약속이 있음에도 의미 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실사를 주류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다음 주 개최될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서로 얽여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 개 이상의 지역협회와 전 세계의 다양한 정치적 맥락을 경험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그들의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아젠다를 공동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기존의 인권 원칙을 새로운 트렌드와 장애물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에게 어려운 과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고 연례 포럼을 계기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미래 모색: 우수 사례\(Navigating the Futur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Good Practice Examples.\)](#)'이라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비즈니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7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즉 본 보고서는 △직업의 미래, △기후 정의, △효과적인 구제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이민자 권리, △성평등, △실사, 그리고 △노동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발전과 함께 인권과 평화는 유엔의 창립 이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근 20년 가까이 지지해온 바와 같이 인권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10년을 개시함에 앞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서약을 넘어 의미있는 장기적 목표와 실천을 현실화하기 위해 재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인권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진정한 인권 리더십에 박차를 가해봅시다.

[\[자세히 보기\]](#)

2. 유엔글로벌콤팩트, <기업과 인권의 미래 모색: 우수 사례>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 '[기업과 인권의 미래 모색: 우수 사례\(Navigating the Futur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Good Practice Examples\)](#)'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인권 경영을 기업 전략에 내재화하고 증가하는 글로벌 과제에 대한 인간 중심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권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리더십의 근간이 된다"며 "기업에 있어서 인권이란 우수 인재 확보와 유지, 다양성 존중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통해 인력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26일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될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기업은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소비자, 투자자, 일반대중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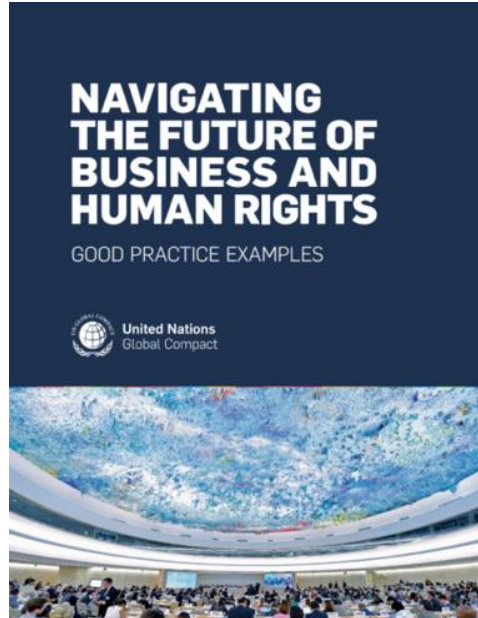
본 리포트는 기업이 사회적 지속가능성 동향을 이해하고 인권을 기업 활동의 중심에 두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또한 노동의 미래, 기후 정의, 효과적인 규제와 고충처리 절차, 이주민 권리, 성평등, 인권 실사, 근로빈곤 등 비즈니스 리더들이 알아야 할 주요 인권 이슈를 소개합니다.

본 보고서는 '2019 UNGC 이행보고서', 'CEO 보고서'의 데이터와 작년 발간된 '인권,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의 토대([Human Rights: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siness](#))'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권,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의 토대' 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적용 사례를 담은 자료로 지난해 발간되었습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정부, 재계, 시민사회에서 2,0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세계 최대 연례 모임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동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인권경영 관련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대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 해당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발간물] 기업과 인권의 미래 모색: 우수 사례 (Navigating the Futur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Good Practice Example)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물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널리 알려진 현상 마저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권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리더십의 근간이 됩니다.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면 기업 또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CONTENTS

1. [서문]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5p

2.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최우선 과제 – 동향 소개와 우수 사례-----7p

- I. 기술 혁명과 노동의 미래
- II. 기후 정의와 제로탄소경제를 위한 노력
- III. 효과적인 규제 정책과 고충처리 절차
- IV. 이민자 권리 보호와 윤리적인 인재채용
- V. 젠더 관점 투자
- VI. 인권 실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
- VII. 근로 빈곤 퇴치

3. 전 세계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확대 -----33p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공급망을 포함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하는 기업의 의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은 이와 같은 책임을 이행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공급망 구조, 강력한 제도의 부족과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해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 이러한 기대를 충족해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인권 이슈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인권 과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사회의 기대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경영 전략을 조정하고, 실제로 그들의 기업활동의 영향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기업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은 인권을 고려하여 기후행동전략을 세우고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재무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빈번히 도전에 직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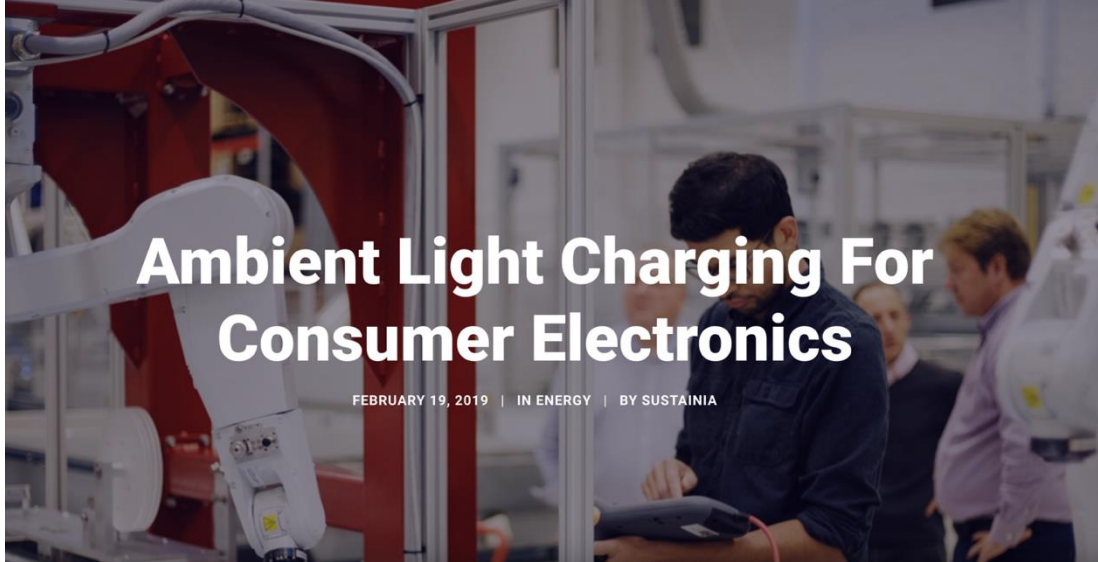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각국 지역협회에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 이행 최우선 과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칠레, 케냐, 필리핀, 폴란드 등지에 이르는 전세계 기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각국 지역협회의 인사이트가 담겨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의 우수사례를 한눈에 보여주고, 각국 지역협회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 보고서는 노동의 미래, 기후 정의, 효과적인 구제책과 고충처리절차, 이민자 권리, 성평등, 인권실사, 근로빈곤 7 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합니다.

한편, 본 보고서에는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아모레퍼시픽의 우수사례가 게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산모들을 위한 유연근로제 및 보건서비스 등의 도입 등 아모레퍼시픽이 제공하는 여성 직원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직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내 여성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16 년 26.5%에서 2018 년 31%로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가전용 환경광(Ambient Light) 충전



엑세거(Exeger)는 전자책 단말기, 태블릿 및 헤드폰과 같은 충전 장치에 주변 조명을 사용하고 희토류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유연한 가전제품용 태양 전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환경광(Ambient Light) 충전은 햇빛에 의존하지 않고 실내와 실외 조명 조건에서 모두 에너지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빛에 민감한 염료는 광 에너지를 흡수하고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주변에 광원이 있을 시 플러그에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엑세거의 심플한 디자인과 유연한 태양 전지는 다양한 개인용 전자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중심부에 있는 엑세거 공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 전지 제조 공장이며, 몇몇 희토류 광물에 의존하는 다른 변종들과는 달리 태양 전지의 생산을 위해 널리 이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엑세거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독성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2017 년 미국 내 소비전력이 143 테라와트시에 달했습니다. 이는 2 천 160 만대의 차가 매일 50km 주행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이자, 16 억 7 천 200 만 그루의 묘목을 심고 그 후 10 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 흡수를 위해 이 묘목들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엑세거의 솔루션은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169 테라와트시(TWh)로 추정되는 소비자 가전 충전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2. [Goal 3,8,9,17]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KT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국민과 함께 성장해온 KT 는 'ICT 를 기반으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최고의 국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공헌 영역까지 기업 미션을 확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GiGA 인프라와 ICT 기술 등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사람, 사회, 문화 3 대 측면에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T 는 책임 있는 글로벌 통신기업으로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UN 글로벌 콤팩트 회원으로 활동하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KT 가 전개하고 있는 경제·환경·사회적 측면의 혁신적인 활동과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인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탄소공개 프로젝트(CDP) 등에서 다년간 최고 수준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통신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p>KT그룹 사회공헌 X UN SDGs</p> <p>KT는 UN SDGs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p>01 빈곤의 퇴치 KT그룹 임직원 봉사단</p>
	<p>13 기후변화 대응 kt m&s 기후변화 캠페인</p>	<p>02 기아 해소 BC카드 별건법차</p>
<p>05 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kt es 윈터달 캠페인</p>		
<p>09 인프라와 산업화 kt skylife 사랑의 UHD 인터넷 kt linkus 생활편의 검증진화</p>	<p>10 불평등 해소 kt is 독거노인 사랑잇기 말벗봉사 kt powerfel 국민안전 무선 단말기 지원 kt sports 3세 나눔</p>	<p>04 교육의 질 보장 KT그룹 드림스쿨, KT IT서포터즈, KT 장학사업, KT 공몽센터 kt sat 우주과학체험, kt ds IT 미래인재 양성 교육 nasmedia 청소년 세계시민교육</p>
<p>08 경제성장과 일자리 kth 스타트업 멘토링</p>	<p>11 지속가능한 도시 kt estate 사랑의 집 고치기</p>	<p>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kt commerce 플리마켓 지원</p>
<p>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kt telecop 독도자킴이 후원 요금제</p>		<p>17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kt mhows 기프타스 공익캠페인 PlayD NGO와의 파트너십</p>
<p>07 지속가능 에너지 보장 KT그룹 기가사랑방</p>	<p>15 육상생태계 보존 kt engcore 도시녹지보존</p>	<p>03 보건 증진 KT 소리창기 KT 갑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p>
	<p>14 해양자원 보존 kt submarine 해양환경정화 활동</p>	<p>06 수자원과 위생 KT그룹 동지희망나눔센터</p>

2. SDGs 전략 및 사례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대표적인 사례로 KT 는 ICT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 Goal 3 보건 증진을 이행하는 데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T CEO 는 2016 년 6 월 UNGC Leaders Summit 2016 에서 'ICT 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9 월에는 UNGC 와 협력을 위한 MOU 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6 년 11 월, KT 는 본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ICT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 위험 국가에 방문한 국민에게 SMS 로 감염병 위험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지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GEPP¹ 프로젝트는 2017 'G20 Multi Stakeholder Conference'에서 소개 되었으며, 2017 년 'B20 Health Initiative Policy Paper'에 사례로 소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KT 는 세계경제포럼(WEF)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2018 년 1 월에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다보스포럼에서 출범한 ERA(감염병 대비체계 강화, Epidemic Readiness

¹ GEPP(Global Epidemic Prevention Platform) :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Accelerator) 세션에서 전 세계가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는 GEPP의 글로벌 확산 비전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2018~2019, 2년 연속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 KT는 올해 'Trustworthy Data' 세션에 패널로 참여하여 GEPP 국가런칭의 성과를 공유하고 KT 기술 기반 공공보건 분야의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GEPP의 비전 선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T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의 또 다른 선도적인 사례로는 ITU BBCom(ITU Broadband Commission)에서 출범된 감염병 대응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Epidemic Preparedness)이 있습니다. 워킹그룹(GSMA, ITU, Intel, Ericsson 등)의 운영 결과, ITU BBCom 총회에서 ICT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 보고서(Preventing the Spread of Epidemics Using ICT)로 발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KT는 국내의 성공적인 GEPP 구축 사례를 해외에 확산 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GEPP 프로젝트의 첫 글로벌 진출로는 케냐에서의 GEPP 구축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5월, KT-사파리콤간 MOU 체결 이후, 작년 12월에 케냐 정부(보건부, 정통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GEPP 착공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민관 협력(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는 가나 보건청(Ghana Health Service)과 MOU 체결을 통해 감염병 감시체계강화를 위한 GEPP 구축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가나 보건청과의 MOU 체결은 국가 보건 기관과 맺은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T는 GEPP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주요국가에 협력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GEPP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KT :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 사례

KT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인 기가 스토리는 KT의 핵심역량인 ICT를 활용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GiGA 네트워크의 속도와 ICT 솔루션의 융합을 통해 도서산간 지역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가 스토리 프로젝트의 첫 글로벌 사례로는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고 열악한 IT 환경을 갖춘 방글라데시 모헤시칼리 섬에 KT는 방글라데시 정부, IOM(국제이주기구), KOICA(한국 국제협력기구) 등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ICT 서비스와 기술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승인한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는 2017년 4월 방글라데시의 총리인 '셰이크 하시나'의 공식 선언과 함께 런칭 되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2021년까지 절대 빈곤을 퇴치하고 중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운 국가 발전 전략인 '디지털 방글라데시 2021'에도 부합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모헤시칼리에는 학교와 보건소와 같은 많은 공공 기관이 있지만 교사나 의사 수가 적고, 역량 부족으로 심화 학습과 진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KT는 모헤시칼리 섬 3개 유니온, 25개 공공기관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여 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섬 내 빈곤과 교육 부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p>원격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NGO 단체인 'Jaago' 재단과 협력하여 10개 초등학교에 화상교육 제공 - 영어 학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교사용 포털 등) 	<p>디지털 헬스케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현지 보건 클리닉 연결 및 데이터 공유 - 질병 진단을 위해 모바일 건강 검진 기기 활용 [예 : 'Sonon'(모바일 초음파 기기), 'myCheck'(혈액 분석기)]
<p>IT 정보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수업을 위한 IT 교육 공간 마련 - 정부 주도 컴퓨터 교육 진행 및 직업 역량 강화 수업 	<p>전자 상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와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소비자 및 직접 연결되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구축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 프로그램인 AICC (Agricult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및 IPM (Integrated Pest/Crop Management) 활성화

'Global GiGA Island' 프로젝트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공공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섬 마을 주민들이 ICT를 활용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하여 UN SDGs의 17개 중 목표 17: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세계경제포럼(ERA-Epidemic Readiness Accelerator, Data Innovation)



ITU-UNESCO Broadband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내 감염병 확산방지 워킹그룹 리딩(2018.9 월)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3.3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NTD)과 같은 전염병을 근절하고, 간염, 수인성 질환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를 목표로 합니다.



전염병 퇴치에 관한 전세계적 관심은 제1차 영양에 관한 국제회의(ICN)에서 채택한 영양에 관한 세계 선언과 행동계획(1992)에서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동 선언에서는 동물과 기생충을 매개로 전염되는 질병의 예방, 통제, 근절을 설정하면서 환경 개선, 적절한 1차 진료 서비스 제공, 백신프로그램, AIDS 예방 및 통제 프로그램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에이즈(UNAIDS)의 보고서(2010)에 따르면, 1998년 가장 성적으로 활발한 인구(15~49세)의 주요 사망원인에 AIDS가 포함되었고, AIDS 감염인구가 3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유엔에이즈(UNAIDS)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HIV/AIDS와 인권 국제 지침(1998)을 발간하였습니다. MDGs에 이어 SDGs에서는 2010년 WHO에서 처음 집중 보고한 NTD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NTD 퇴치도 포함시켰습니다.



Network Korea

SDGs 세부목표 8.2는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각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주도하에 1981년 개최된 최저빈곤국에 대한 회의에서는, 1980년대 최빈국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SNPA)를 채택하였습니다. 동 행동계획은 향후 10년간의 경제개발 방식과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제2회 최빈국에 대한 회의(UN Conference on LDCs, 1991)에서는 파리선언과 1990년대 이행방안을 채택했습니다. 파리선언은 총5가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1980년대 침체기를 벗어나 경제 재활성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 각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하였습니다. 그 중에 산업, 서비스, 과학 및 기술기반 발전,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혁신 등이 포함되어 있고 SDGs도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9.c은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접근성을 확대하고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 및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2003)에서는 누구나 ICT로 인한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고, 정보 및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 튀니스 의제(Tunis Agenda, 2005)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 및 ICT에 대한 현 접근법이 불충분하고, 인터넷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인터넷 요금이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특히 개도국 사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국제 인터넷 연결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7.8는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영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ICT)과 같은 구형기술의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제 3 차 유엔 최빈국 회의 (UNCLDC) 의 브뤼셀 행동계획(2001)에서는 최빈국의 기업이 낮은 수준의 기술 활용,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자원의 부족,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 혹은 신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역량 부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용한 정책, 규제 투명성, 시장 자율화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에서 최빈국에 기술을 이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을 포함한 신 기술 활용을 위한 현지 R&D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설정했습니다. 뒤이어 제4차 UNLDC에서 채택한 이스탄불 행동계획(2011)에서는 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2013년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기술 은행을 설립하여 최빈국의 연구 기관과 연구자들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여 최빈국의 과학연구와 혁신 역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되는 동 행동계획을 SDGs에서도 반영했습니다.



[원문보기]

3. [SDG 미디어 존] SDG 엠비션: 기업 활용 방안

전 세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SDGs 주류화



<댄 토마스(Dan Thomas) 유엔글로벌콤팩트 홍보최고책임자,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벤 크리스텐슨(Ben Christensen) SAP Next-Gen 글로벌 혁신 부장>

지난 11 월 5 일부터 7 일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웹서밋'에서는 <SDG 엠비션: 기업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크 세션이 있었습니다. 댄 토마스 (Dan Thomas) 유엔글로벌콤팩트 홍보최고책임자,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과 벤 크리스텐슨(Ben Christensen) SAP Next-Gen 글로벌 혁신 부장이 참석한 본 세션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SAP 의 파트너십으로 설정된 SDG 엠비션과 데이터 및 기술사용이 바탕인 혁신적이고 야심찬 비즈니스 전략 구현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SDG 엠비션'은 UNGC 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비즈니스의 파워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가진 신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SDGs 달성에 있어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SAP 의 협력관계의 중요성과 글로벌 목표를 실현하는 위해서는 더 나은 지침과 더 나은 도구를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은 "UNGC 회원사 기업의 60% 이상이 접합한 툴을 찾 있다"며, "SDG 엠비션'은 매우 간단한 구현 모델이고, 전세계의 기업들에 전체에 적용하고자 하는 모델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벤 크리스텐슨은 "SAP 가 중요한 기술 플랫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SDG 엠비션' 구성을 통해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SDG 엠비션'은 SDGs 달성에 필요한 사고방식을 기업들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도구, 관리 및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기업 활동 전반에서 SDGs 를 고려하고 전략 및 운영에 내재화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SDGs 달성에 있어 기술 관련 기업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권고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SAP Next-Gen 은 기업 대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SAP 가 지원하는 기업, 파트너 및 대학교가 17 개의 SDGs 와 연계된 목적으로 연결성을 확보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DGs 엠비션: 기업 활용 방안' 토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영상보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UNGC 회원뉴스

1. 현대차그룹, 중소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4년 연속 1위



- 11월 18일, 현대차그룹은 중국사회과학원 CSR연구센터의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힘
- 현대차그룹은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에서 2016년부터 4년 연속으로 자동차 기업 중 1위를 차지.
- 현대차그룹은 2008년부터 '현대그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3년 내몽고 차칸노르 지역의 약 5천만㎡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 사막 조치에 개선

[\[원문보기\]](#)

2. 한국무역보험공사, 장애인 고용기업에 수출안전망보험 제공



- 11월 26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함.
- 협약은 장애인 고용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단순 기부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양 기관이 본업과 연계한 사회적가치 실현에 주목했다는 점 강조.
-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수출지원과 연계한 사회적가치 실현이 최대한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원문보기\]](#)

3. 경기일자리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11월 12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회적 책임 이행 확대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해 증서를 받았다고 28일에 발표함.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내부 및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경영헌장' 선포, 유엔글로벌콤팩트 4대 분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추구 약속.
- 문진영 경기일자리재단 대표는 "UNGC 가입을 계기로 재단 운영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원칙을 적용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겠다"면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인적자원 교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원문보기]

CSR 뉴스

1. Maximize the positive' from new technologies, for our digital future, Guterres u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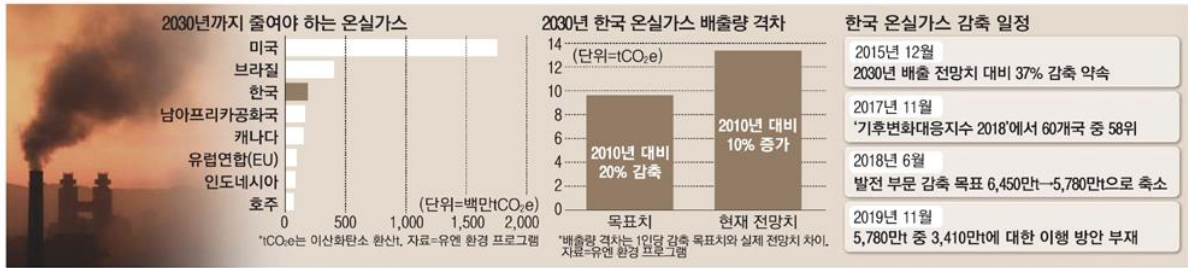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 On the 21st of November 2019,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insisted that new technologies, and particularly digital technologies, are already having a major impact on the world, affecting all our work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 He emphasized the need to strengthen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close the digital gap, to recognize human rights in digital contexts, and to build cyber trust and security.
- The UN is currently finalizing small groups of “champions” for each of these recommendations who will lead key groups including from the Organization, governments, industry and civil society.

[원문보기]

2. 유엔의 경고..."탈원전 한국 온실가스 줄여라"



- 2019년 11월 26일,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은 세계 각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분석한 '배출량 격차 보고서(EGR) 2019'를 발표함.
- 한국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목표치보다 탄소 배출량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이처럼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현황을 공식 점검받는 '글로벌 스톡테이킹'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한국의 인구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이고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서도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임. 2017년 11월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 2018'에서 60개국 중 58위로 최하위에 그침.

[원문보기]

3. 유럽의회, '기후 비상사태' 선언... 국제사회 행동 압박



- 유럽의회는 11 월 28 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429 표, 반대 225 표, 기권 19 표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기후, 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승인함.
- 이는 내달 1 일 유럽연합(EU) 차기 집행위원회 출범과 같은 달 2~13 일 스페인에서 예정된 제 25 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을 압박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됨.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 당선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새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음. 폰데어라이엔 당선자는 '유럽 그린 딜'의 하나로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도입하고 2030 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의 1990 년 대비 40%에서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힘.

[원문보기]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1 월 15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3 곳입니다.

- noul
- 광주도시공사
- 효성첨단소재(주)

2. COP/COE 제출회원

11 월 15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
- CJ 대한통운
- 한국전력기술(주)
- 국민체육진흥공단
- 한화건설
- 양주시시설관리공단
- 한전 KPS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learn more)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1/4, 2/4, 3/4 분기, 4/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4/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JB 금융지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사회보장정보원, 카라반이엑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컨설팅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오토,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CJ 제일제당, 인천국제공항공사, 코웨이,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한국국제봉사기구(사),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충북대학교

<4/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LG 디스플레이, NH 농협은행, SK 주식회사, DGB 금융지주, 한화건설, 티비에이치글로벌, 삼덕통상(주),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주)에프엠비이디, 세일인터내셔널, 아진트랜스,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한국인권재단, 베타니아복지재단, 진해장애인복지관, (재)동천,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푸른나무청예단,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아시아정당국제회의사무국, 국민연금공단, 한국임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